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1. 9. 16.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연합뉴스 등, “15일 정전사태 해킹 가능성”
보도에 대한 해명

1. 기사요지 (‘11.9.16. 연합뉴스, 전자신문, 디지털타임스 등)

- ☐ 보안 SW업체 「큐브피아」(사장: 권석철)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5일 정전 발생 원인이 해커에 의한 사이버테러일 가능성을 제기
- ☐ 권사장은 9월초 한전 전력연구원 고창시험센터의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있으며 15일 정전사고는 이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☐ 한전 전력제어망(SCADA 등)은 인터넷망 및 업무망으로부터 분리된 폐쇄망으로 운영하고 있어, 외부 해킹가능성은 없음
- ☐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테스트 중에 있는 1개 서버가 9월초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있으나 기조치 완료되었고, 전력제어망과는 연결되지 않은 서버로 금번 정전 발생과는 전혀 관련 없음
- ☐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「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」를 통해 전력 등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해 365일/24시간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☎ 자료문의 : 지경부 정보화담당관실 박영삼 과장(02-2110-5231),
최우형 사무관(02-2023-1812)